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의 차이는?

주의보와 경보는 시간 당 내린 비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일기예보도 결국은 표준이 주는 혜택인 것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오늘 하루 일 이 시간 현재까지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mm에서 지역에 따라 180mm 까지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전국에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더 내려 시간당 150mm에서 300mm 이상 될 것으로 예측 돼 그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저시대 지역 주민들께서는 침수 및 축대 붕괴에 대한 안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퍼붓는 비는 내일 아침에 가서야 주춤할 것으로 보여..."

빨간 레인코트를 입은 기상캐스터가 씩 새 없이 도박도박 날씨 정보를 읊어댄다.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했다는 기상 캐스터의 말에 과일을 깎던 아내가 입을 연다.

"장마도 지났는데, 올 해는 도대체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걸까? 얼마 전엔 북한까지 수해가 대단하더니, 제주도 저기도 정말 걱정이다."

"그래, 수해 그거 정말 슬픈 재난이야.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복구 작업 나가서 보면, 내 몸 힘든 건 돌 채 치고, 수재민들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곤 했다니까."

아내가 포크에 찍어 준 사과를 받아 들며 표 대리가 말했다.

"여하튼 올 해 여름 시작부터 줄곧 비야. 외근

다니기도 얼마나 힘들었다고~, 바지 다 젖은 채로 외부 미팅 다닐 때의 그 짜증이란~, 쫓쫓." 아내가 고개까지 저으며 투덜거리다 갑자기 표 대리를 쳐다보며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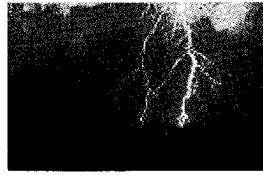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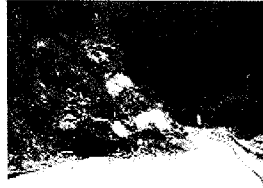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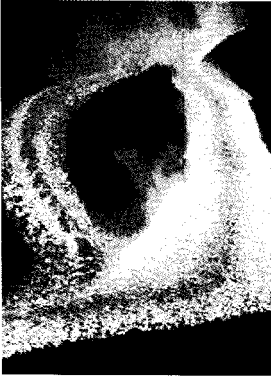
"그런데, 여보, 주의보랑 정보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주의보는 약한 것이고, 경보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겠지?"

잠시 생각에 잠긴 표 대리, 마침 얼마 전 업무 보고를 위해 읽었던 지방 공장들의 수해 대책 및 방지 전략 보고서에서 눈여겨 봐 둔 내용이 기억나 자신 있게 대답하기 시작한다.

"음... 그건 말아야, 시간 당 내린 비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야. 12시간을 기준으로, 80mm 이상의 비가 내려 이로 인한 다소의 피해가 발생될 때는 호우주의보, 그리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이로 인해 상당한



12시간을 기준으로 내린 비의 양에 따른 기준에 의해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진다



피해가 발생할 때는 호우경보가 발효 되는 기야. 당신 말대로 경보가 주의보보다 심각한 상황이란거지."

"주의보가 80mm, 경보가 150mm라는 거지? 시간은 12시간 기준이고, 이런 표준 수치들도 알아두면 꽤 유익해 보이겠는 걸?" 아내가 웃으며 말을 했다.

"유익해 보이는 기 보다, 뭐 하나라도 더 알면그런 게 다 경쟁력이 되는 거지. 그런데, 새삼 생각해보니, 세상엔 참 재미있는 직업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기준들을 만드는 일도 참 보람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피해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잖아."

"흠..., 그래, 분명 이런 기준들을 통해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거야. 항상 당하고 나서 대책 마련하는 것 말고." 아내의 동의에 표 대리가 말을 잇는다.

"지구 환경파괴가 심각하하는데, 앞으로 기상 정보 말고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보, 경보가 생겨날까봐 걱정이야." "음..., 맞아. 자동

차가 많지 않던 옛날엔 오존주의보라는 건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 미래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끔찍해.

아직은 끔찍하지 않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여보, 비도 오는데 우리 와인이나 한 잔씩 마시고 잘까?" 부업으로 향하며 아내가 말했다.

| 기술표준 2009.11

[표준 TIP]

기상정보도 표준이 있어 제공되는 것, 아십니까?

기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간 정보의 수집과 공유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은 기상분야에서 세계 두 번째로 기상정보시스템의 국제표준인증(CMMI)을 획득하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서비스의 품질 및 대외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